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7.3.13.(월) 16:00 - 17:00	장 소	성북배움터(구청 3층)
참석자	8명(김경옥, 김지희, 박다혜, 윤정섭, 이민영, 이진수, 하장호, 전문수)		
회 의 내 용			
회의시작			
○○○ : 조례심의부터 하도록 하겠다.			
○○○ : 인권센터 의견으로 다른 조례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나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발급대상자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으로 한정하는 것이 미등록 이주아동이 제외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 : 조례안 만들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가?			
○○○ : 지난번 시설이용 조례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확인했다. 아직 조례 심의전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지 못했으나 내부적으로 과에서 의견이 있었다. 현재 국가제도조차도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나 육아지원에서도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분들은 배제되어 있다.			
○○○ : 법적 근거가 있는가?			
○○○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지자체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사회복지 기본법에 근거하여 복지부와 협의하여 진행 중이다.			
○○○ : 지자체의 재량의 범위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지 않는가.			
○○○ : 현재 국가제도에서 제도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포괄시행 할 경우 의회에 설명하고 설득할 때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상황이다. 국가제도 개선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법이 정리되면 우리도 그에 따를 생각이다.			
○○○ : 국가제도에서 빠져 있다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해도 좋을 듯하다.			
○○○ : 청소년 전부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산의 한계로 중1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문예체중심의 지원 사업이 모든 국민에게 필요하지만, 중1 자율학기제와 맞물려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중학교전체가 아닌 일부로 지급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제한 없이 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 그러나 의견을 주시면 계속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다.			

회 의 내 용
○○○ : 해당 학생에 대한 홍보는?
○○○ : 교육지원청의 협조 하에 학교에서 안내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명단을 받을 수 없어 홈페이지와 성북구내 대안학교 등 학교 밖 기관에 홍보하고 있다. 학교 내에 있을 경우 중 1, 학교밖에 있는 경우 중1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 굳이 학교 밖과 학교 내를 구분해서 재학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 : 그렇다. 자율학기제와 맞물려 시행하는 것이므로 주민이 대상이긴 하지만 중 1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학교를 일찍 가거나 할 수 있으므로 재학증명서를 받는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차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럴 경우 연령으로 하고 있다.
○○○ : 인원수 제한은 있는가?
○○○ : 없다
○○○ : 이 사업에 대한 과장님의 평가는 어떠한가?
○○○ : 우리 아이들을 모두 1등으로 키울 수 없다.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이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해야할 일이다. 아이들이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되었다. 현재 문화누리 카드가 있어 공연이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 안에서 자라면서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하면 지역 안에서의 프로그램이나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그것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지가 중요하다
○○○ : 사용처를 한정하되,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등 양질의 공연을 하는 곳은 포함할 예정이다. 그 외에는 성북구로 한정하려고 한다. 다행히 성북은 문화재단이 있고 혁신사업관련 콘텐츠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마을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안에서의 문화 활동이 가능하고, 지역입장에서 보면 아동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
○○○ : 그럼 그러한 것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가?
○○○ : 현재 프로그램을 조사해 놓았고 선별작업과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보완하고 있다.
○○○ : 염려되는 부분은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이 어려운 아이들이 걱정된다.

회 의 내 용

- ○ ○ :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걱정하지 않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누락의 우려가 있어 홍보에 집중하려 하고 있다.
- ○ ○ : 성북구가 최초인가?
- ○ ○ : 세종시가 2015년도에 준비하였으나 지역기반이 준비가 덜 되었다. 또한, 누리카드에서 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세종시 의회에서 두 가지 정책을 동시 진행하려 했더니 정부에서 유사중복사업으로 제재하였다. 성북은 지역기반이 잘 되어 있고 중복사업에 대한 최종합의는 성북이 먼저 했다. 다만 우리는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고 세종시는 먼저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정부협약이 늦어진 경우다. 아마도 시행은 세종시가 먼저 할 것이다. 최초 시행여부보다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므로 6월부터 지급 예정이다.
- ○ ○ : 교육혁신지구 조례관련 질의도 있으시면 해 달라.
- ○ ○ : 혁신지구 관련 조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서울시와 교육청의 시책사업으로 예산에 대해 자치구서울시교육청의 매칭사업을 진행했다. 이사업은 시행 2년차에 있는데 의미 있는 변화는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 질 때보다 문예체 지원 등의 연결 프로그램 등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온 상태이다.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만·학관 거버넌스 160명 정도가 참여하여 사업설계부터 예산까지 그곳에서 결정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 ○ ○ : 진행 중 인가?
- ○ ○ : 그렇다. 지난해 서울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다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에서 학생 수가 부족해 가장 많은 예산을 받지 못했지만 많은 예산을 받은 구에 속한다.
- ○ ○ : 아동카드 관련하여 위임자가 복지시설장 대표에 한하는가, 학교는 포함이 안되는가?
- ○ ○ : 학교에서 업무량 폭주로 거부하여 홍보요청만 했다. 지역아동센터는 가능하다.
- ○ ○ : 지역아동센터가 사용처가 될 수 있는가
- ○ ○ : 가맹점 등록 등이 필요하므로 지역아동센터는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향후 방과 후 학교의 문·예·체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회 의 내 용

- ○ ○ : 방과 후 학원도 가능 한가
- ○ ○ : 향후 가맹점 등록을 시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 ○ : 일부결재하고 부족 하면 자부담 되는가
- ○ ○ : 그렇다. 처음 20만원으로 설계했으나 의회에서도 금액이 크다고 하고 성북은 초기단계이며 앞서있어 파급력이 큰 곳인데 금액을 높게 설정하면 다른 지자체가 따라오기 힘들다는 정부안이 있어 금액을 낮췄다
- ○ ○ : 불용 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
- ○ ○ : 쓴 금액만 계산이 된다. 누리카드의 경우를 보면 금액이 거의 남지 않는다. 아이들이 정보공유가 높다.
- ○ ○ : 2가지 조례에 대한 설명이 끝났다. 일정상 계획했던 정책회의는 일정상 취소 되었다.
- ○ ○ : 지난번 회의 결과에 대해 들겠다.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장애인 체육 관계자관련 사항은 수용했으나 여성위원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미수용 했다. 체육의 특성이 무엇이어서 여성위원을 참여시키기 힘든지 납득하기 어렵다. 어떤 정책적 사례를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 자료 요청이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이런 결론이 나온만한 사례(예를 들어 체육 활동 모집에 여성참여율이 적었다던가)에 대한 근거를 보고 싶다
- ○ ○ : 그동안의 근거 보다 성별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보고 싶다. 여성위원이 부족할 때 어떤 노력을 했는가 알고 싶다.
- ○ ○ : 성북구 내에 체육인들, 단체 등의 현황을 보고 싶다. 관내 여대를 비롯하여 여성체육인들이 있어 보인다.
- ○ ○ : 부서에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회의를 마치도록 하겠다